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가연¹ · 박순옥² · 박선정³ · 박복순⁴ · 광근혜⁵ · 박병준⁶

¹강릉영동대학교, 부교수 · ²여주대학교, 교수 · ³여주대학교, 조교수

⁴강릉영동대학교, 조교수 · ⁵두원공과대학교, 조교수 · ⁶대구보건대학교, 조교수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ir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Ga Yeon, Ko¹ · Soon Ok, Park² · Sun Jung, Park³

Bock Soon, Park⁴ · Keun Hey, Kwak⁵ · Byung Jun, Park⁶

¹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²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³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 ⁴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⁵Doowon Technic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⁶Daeg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identify a relationship with a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communication capabilities. **Methods** : This study conducted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8 in 200 third and fourth graders of three universities in Gyeonggi-do and Gangwon-do. Technical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pectively. **Results** : Communication capabilities were correlated with practice satisfaction.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were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12.5%. The variable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are confirmed by the practice satisfaction. **Conclusion** : The courses organized and best practice environment, improve the practical experience in organic cooperation of hospitals and practices are necessary for effective clinical practice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Leadership, Communi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조직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이므로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환자와 가족과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준비되어야 한다[1]. 간호학과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실제적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2]. 학습되어진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수단이다[3].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대화를 이끌어 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적절한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4].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적응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은 이론을 통해 학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써, 자신의 전공학과가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게 되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므로[5], 간호사로서의 본인의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미래에 간호사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으며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실무능력을 배우고 미래의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6], 실습만족이 높은 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진로결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행동에 대한 인식 전략이며, 개인의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상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이다[7]. 셀프리더십이 높은 간호사는 대상자 및 동료 간의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하여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이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8]. 이를 통해 미래의 간호사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으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높이고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것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소명, 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9].

간호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6], 공감능력[10], 감성지능[11], 대인관계[12], 임상실습 스트레스[13], 임상수행능력[14], 자기인식과 타인인식[15], 자아존중감[16]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와 변인들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하는 3개 대학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표본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3.1 analysis software[17]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의 방법과 예측변수를 고려하고 효과크기는 0.3, 영향력을 0.95로 계산하였을 때 182명이 요구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였고, 응답률이 부적절한 2부를 제외한 19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Sim[18]이 개발한 전공학과 만족도 도구를 Kim[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의 5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2문항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2$, Kim[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 실습만족도

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20]이 개발한 도구와 Lee, Kim과 Kim[21]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1문항, 6개 하위(실습교과 만족도 3문항, 실습내용 만족도 6문항, 실습 지도 만족도 9문항, 실습환경 만족도 7문항, 실습시간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 만족도 3문항)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3) 셀프리더십

Manz[22]가 개발하고 Kim[19]이 수정·보완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로 6개 하부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Hur[2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15개의 의사소통능력 구성요인을 각 1개의 진술문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2$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학과장에 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총 200부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답변을 2부를 제외하고 부를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유지가 보

장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연구 참여 및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들에게 자필서명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t-test 및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학생 60명(30.3%), 여학생 138명(69.7%)이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 198)

Variables		N	%
Gender	Male	60	30.3
	Female	138	69.7
University satisfaction	Satisfied	169	85.4
	Unsatisfied	29	14.6
Majority satisfaction	Satisfied	55	27.8
	Unsatisfied	143	72.2

고, 학생들의 대학 만족도의 유효수준은 “좋음” 169명(85.4%), “나쁨” 29명(14.6%) 있었으며, 전공 만족도의 유효수준은 “좋음” 55명(27.8%), “나쁨” 143명(72.2%)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5 \pm .39$ 점, 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2 \pm .55$ 점,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68 \pm .41$ 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36 \pm .4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N= 198)

Variables	Mean \pm SD	Min ~ Max
Majority satisfaction	$3.45 \pm .39$	2.56 ~ 4.44
Practice satisfaction	$3.32 \pm .55$	1.45 ~ 4.65
Self-leadership	$3.68 \pm .41$	2.63 ~ 4.77
Communication capabilities	$3.36 \pm .47$	1.00 ~ 4.67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만족도 정도에 따라서는 실습만족도($t=5.19$, $p<.001$), 의사소통능력($t=2.64$, $p=.0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공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실습 만족도는 대학 만족도가 나쁜 학생들의

Table 3. Different of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N*= 198)

Variables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Communication capabilities		
		M±SD	t	p	M±SD	t	p	M±SD	t	p	M±SD	t	p
Gender	Male	3.44±.39	-0.39	.695	3.34±.55	0.70	.483	3.68±.41	-0.08	.934	3.38±.45	1.04	.298
	Female	3.47±.38			3.28±.55			3.69±.42			3.31±.49		
University satisfaction	Unsatisfied	3.38±.34	-1.02	.311	3.66±.33	5.19	.001	3.71±.46	0.40	.689	3.57±.48	2.64	.009
	Satisfied	3.46±.40			3.26±.58			3.68±.40			3.32±.46		
Majority satisfaction	Unsatisfied	3.45±.40	0.17	.862	3.27±.55	-2.09	.038	3.69±.43	0.53	.597	3.32±.46	-1.61	.108
	Satisfied	3.44±.38			3.45±.52			3.66±.37			3.44±.4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Variables	Majority satisfaction	Practice satisfaction <i>r</i> (<i>p</i>)	Self-leadership <i>r</i> (<i>p</i>)	Communication capabilities <i>r</i> (<i>p</i>)
Majority satisfaction	1	-.04 (.626)	-.12 (.082)	-.02 (.813)
Practice satisfaction		1	-.01 (.847)	.33 ($< .001$)
Self-leadership			1	-.12 (.930)
Communication capabilities				1

점수가 3.66±.33으로 좋게 생각하는 학생 점수인 3.26±.5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 또한 대학 만족도가 나쁜 학생들의 점수가 3.57±.48로 좋게 생각하는 학생 점수인 3.32±.46 보다 높았다. 일반적 특성의 전공 만족도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실습만족도($t=-2.09$, $p=.03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습만족도는 의사소통능력($r=.3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5).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9.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Durbin-Watson 검정결과 2 근처에 있기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2.5%였다. 또한 공차한계가 1이하이고 분산 확대지수(VIF)도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Cap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β	t	p	Tolerance	VIF	R ²	F(p)	Durbin-Watson
Communication capabilities	Majority satisfaction	-.02	-0.29	<.001	.98	1.02	.125	9.27 (<.001)	2.03
	Practice satisfaction	.33	4.94	<.001	.99	1.00			
	Self-leadership	-.12	-1.74	.084	.98	1.02			

IV. 논 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45 \pm .39$ 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4]의 3.91점의 연구결과보다 낮게 확인되었다. 고학년이 되면서 대상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입학당시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학생들이 자신의 기대와 진로에 확신을 가져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Jung, Jeong과 Yoo의 연구 결과[25]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간호학 진학동기가 졸업 후 직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므로 자신의 전공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전공만족도가 낮게 확인된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25]. 따라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학습하고 있는 전공학과가 스스로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을 높아지게 하고, 전공만족도를 높여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습만족도 평균은 $3.32 \pm .55$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Park, Lee와 Gu[26]의 3.23점, Kim과 Lee[9]의 연구 결과 3.36점과 유사한 연구결과였다. Pearcey와 Draper[27]는 실습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간호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간호학생에 있어서 실습만족도는 능숙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간호대학생의 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습만족도에 대한 질 관리로 개선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 평균은 $3.68 \pm .41$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Park, Yang과 Moon[28]의 연구결과 3.72점과 유사한 연구결과로 확인되었다. Kang 등[29]은 임상실습 경험을 추후 간호현장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기에, 자기관리 역량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의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표현되는 것인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조직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내는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의 평균 평점은 $3.36 \pm .47$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Gu[13]의 3.46점과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는 평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간호의 대상은 인간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며,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및 동료들과의 복잡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기 전부터 학부 과정동안 임상실습을 통해 본인의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사

소통 능력과 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았다. 즉,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an[3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보고되어, 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습 환경에 대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습과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임상실습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실습과 관련된 관계형성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2.5%였다. 의사소통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습만족도이였으므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효율적인 임상 실습을 위해 간호대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과 최적의 실습 환경조성, 실습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실습 내용, 지도, 환경,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29]. 임상현장에서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어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습만족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최적의 실습 환경조성, 실습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실습만족도를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어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셀프리더십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 연구 시 셀프리더십을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1. Park YR, Yang S. Nurse manag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8;17(3):342-352.
2. Park YS, Im SB, Kim HS.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61-368.
3. Rothhoff T, Baehring T, David DM, Bartnick C, Linde F, Willers R, et al. The value of training in communi-

- cation skills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Patient Education & Counseling*. 2011;84(2):170-175.
4. Deppermann A. Research on doctor-patient-interaction in german speaking countrie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07;2(1):40-50.
5. Moon IO, Lee G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0;16(1):83-9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6. Cho IY.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4): 2593-2601.
7. Neck CP, Houghton JD. Two decades of self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06;21(4):270-295. <http://dx.doi.org/10.1108/02683940610663097>
8. Kim JY, Heo NR, Jeon HJ, Jung DY. Effects of simulation education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ttitude about the elderly for nursing students : A learning approach based on an elderly-with-cognition-disorder scenario.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1):54-64.
9. Kim KE, Lee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0):885-89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85>
10. Park HJ, Lee KJ, Kim S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self-efficacy and empathy of psychiatric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Health & Nursing*. 2014;26(1):9-19.
11. Ha JY, Jeon SY.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3):264-273.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264>
12. Kwon YE, Kim SY.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3):967-981.
Doi:1022251/jlcci.2019.19.3.967
13.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14. Kim IS, Jang YK, Park SH, Song S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337-345.
15. Oh EJ.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3.
16. Kwak KH, Park SO, Oh SM, Seo IS, Lee JR, Park SJ, Park BJ.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8;2(3):11-21.
17.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175-191.
18. Sim ES. Gender, class and majo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nd student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Chunche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3.
19. Kim HJ.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20. Cho KJ, Kang HS.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Nursing. 1984;14(2):63-74. DOI: <https://doi.org/10.4040/jnas.1984.14.2.63>
21. Lee SH, Kim SY, Kim JA.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4;10(2):219-231.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41296>
22. Manz CC.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23.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24. Kim MS.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2):159-167.
25.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4;20(1):27-36.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
26. Park MS, Lee MH, Gu JA.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11;29(2):111-123.
27. Pearcey P, Draper P. Exploring clinical nursing experiences: listening to student nurses. *Nurse Education Today*. 2008;28(5):595-601.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7.09.007>
28. Yang N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2):216-225.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2.216>
29. Kang YS, Choi YJ, Park DL, Kim IJ.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16(2):143-151.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2.143>
30. Han SY. Self Efficacy, Fatigu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8;13(2):133-140. <http://dx.doi.org/10.15715/kjhcom.2018.13.2.133>